

이방인¹

글 : 카롤 앙드레아니

번역 : 구모덕

혹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가 김명주는 지난 4 년 전부터 도자 조형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는 지난 프랑스 발로리스 현대 도예 비엔날레 한국 작가 초대전에 소개된 가장 개성적이며 감각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다.

김명주는 한국의 도예 발전을 위해 설립된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에서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6 개월 간의 창작 활동 후 그곳에서 가져온 세 점의 조형물로 구성된 작품 « 어두움 후, 빛 »을 발로리스 비엔날레에 선보였다. 분홍빛을 띠는 하얀색의 형상들은 흘러 내리는 두꺼운 유약 속에서 사라지며 서로 어우러진다 :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듯이 그려진 한 남자의 팔을 짓누르는 웅장한 촛대와 촛대 위에 올려진 천사와 같은 무엇, 왕관을 쓴 머리와 빛에 녹아 내리는 머리 형상, 무릎 꿇고 나아가는 유령 같은 어떤 존재와 그의 머리에 활짝 핀 꽃. 2012 년 이후 작가의 모든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위의 작품은 색의 융합과 용해로 인한 변신을 통해 신성한 내면 풍경을 연출하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만들어낸다.

2012 년 작가는 브뤼셀 캄브르 국립 고등 시각 미술학교에서 2 년 과정의 석사 공부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가 « 내면 풍경 » 시리즈로 명명되는 새 작품의 출발점이다. 이 연작은 « 자신의 그림자를 만지다 », « 불멸의 앞에서 », « 망각, 검게 변하다 »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진다. 이 시절의 여러 작품들이 벨기에와 프랑스, 스위스에서 열린 대부분의 주요 그룹 전시에 출품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2013 년 스위스 까흐쥬 전시이다 : 꺾꽂이 위에 올려진 작은 소녀의 하얀 버려진 몸, 분홍 얼룩진 가슴에 올려진 손, 비스듬히 돌아간 머리, 그 뒤로 풍성한 검은 머리칼, 허공에 뜬 발, 두 발 중 하나에 달린 엄청난 크기의 혹. 모든 파토스(pathos)를 제거한 이 작품은 가시적 무게 없이 궁핍과 버림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유약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조각에서도 대단히 보기 어려운 특별한 느낌을 전달한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제네바 아리아나 유지엄 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은 아리아나 유지엄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사실 놀라운 변화다. 12 년 전 작가가 파리 생폴에서 어떤 아주 작은 아틀리에를 마련했을 때 그녀는 접시나 자신이 만든 '인물'이라 부를 수 있는 작은 조형물들 위에 그림을 그렸다. 일러스트 데생에서 시작한 식물, 동물, 인간을 혼합한 형상은 작고 순진하며 매력적인 도자 조형으로 만들어졌다. 알베르 카뮈의 영향을 받은 « 이방인 나무 »라는 이 작품들의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서른 살의 작가는

¹ Carole Andréani, « Myung-joo Kim, l'étrangère », 프랑스 도예유리 전문지 *라 르뷔 드 라 세라믹 에 뒤 베르* (La Revue de la céramique et du verre), 210 호, 2016 년 9-10 월 게재 기사.

스스로에게 처음 존재론적 질문을 갖는다. 초기의 조형물에 자주 나타나는 브로콜리 머리칼은 이제 막 프랑스에 도착한 그녀가 놀라움으로 발견하는 파리의 시장과 그곳의 물건들 중에 특히 야채에게 표하는 일종의 신기한 오마주(hommage)이다. 또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작 »을 하고 싶은 욕망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작가는 당장 목표를 아주 높게 세우지 않았다.

1973 년에 태어난 작가는 만 18 세에 홍익대학교 도예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 전통 도예 기술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세계를 찾는 것을 격려했다 »고 말한다. 그 시절 화물선을 타고 상륙한 매킨토시가 각 대학교로 들어갔다. 그녀는 디지털 세계에 매혹되었으며 교육용 프로그램 아이콘 디자인 일을 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낭송을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했다. 어쩌면 그녀를 파리로 데려간 그녀의 개인적 상황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지금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첫번째 레지던시 작가 활동은 2008 년 일본 시가라키에서 시작되었다. 이때의 경험과 그 3 개월 간의 일본체류는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환상에서 벗어나게 했고 자신이 느끼는 것들, 불안, 감정, 상실의 고뇌, 망각과 같은 것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줬다. 일본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그녀의 작품 속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 작품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고 한다.

어떤 환상적인 가상의 세계가 꿈처럼 사라질 듯한 내면의 거친 탐구 과정에서 펼쳐진다. 작가의 조형도와 포스린 조형물들은 움직이는 형태와 특이한 색의 사용으로 모양이 고정되지 않고 절제된 소멸 과정을 통해 본연의 감각을 보존하려고 한다. 무의식에서 오는 이 작품들은 언제나 두 세계 사이에 놓여 우리의 감정이나 꿈과 같이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꿀 준비를 해 놓은 듯 싶다. 조형도, 포스린, 페이퍼클레이, 표현력이 강한 유약 등의 여러가지 재료들을 넉넉하게 섞어서 만든 작가의 작품들은 어느 먼 곳에 사는 혼합된(hybrides) 존재들과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추월하는 세계에 영입된 작고 부드러우며 무거운 피조물들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몸과 머리가 중요함을 갖는다면 팔과 다리는 흔적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색채가 보다 더 강조된 최근 작업은 시든 앞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작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데생으로 작업을 준비한다.

유년과 그 상실의 감정처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열정, 사랑, 버림 그리고 무엇보다 흘러가는 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며 고정된 형태를 부여한다는 것은 본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느껴지는 것이며 이는 창작의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와 그의 영화 « 노스탈지어 » (무거운 쫓대의 등장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무의식 표현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준 오딜롱 르동을 만났다. 그리고 놀라운 생기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